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손으로 보는 세상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를 점자로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는 점자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원소리
	⠠	⠠	⠠	⠠	⠠	⠠	⠠	⠠	⠠	⠠	⠠	⠠	⠠	⠠	⠠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	⠠	⠠	⠠	⠠	⠠	⠠	⠠	⠠	⠠	⠠	⠠	⠠	⠠	⠠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	⠠	⠠	⠠	⠠	⠠	⠠	⠠	⠠	⠠	⠠	⠠	⠠	⠠	⠠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	⠠	⠠	⠠
문장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	⠠	⠠	⠠	⠠	⠠	⠠	⠠	⠠	⠠	⠠	⠠	⠠	⠠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ㅌ, ㅍ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C O N T E N T S



점자로 말해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2



테마기획 | 신년사 04



우리연합회에서는 | 김장나누기 행사 & 스키캠프 06

뉴스앨범 | 자원봉사 송년회, 무료안마시연 08

함께 사는 이야기 | 연순자 09

인터뷰 | 시각장애인 최수연 주무관 10

흰 지팡이 발자취 | 관현음악 12

포커스 | 삼성안내건학교 20주년 14

2014 01

vol. 162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1호 통권 162호

발행일 2014년 1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 소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우암에이스타워 403호 전 화 02-950-0109 팩 스 02-934-8069 이 메 일 kbuhongbo@hanmail.net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제작 디코라이징(02-542-5064)



청마처럼 멀리 힘차게 뛰어나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이번 2014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모두 청마처럼 힘차고 끊임없이 밝은 내일을 향해 뛰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사실상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 또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오년 올해는 정부도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높게 예측하고 있고 세계경기 또한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삶 또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복권판매권을 확보하였으나 시각장애인만의 복권판매권을 발전시켰고 모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ONCE(온세)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온세는 90여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재벌로 호텔과 학교, 체육시설, 세탁공장 등 모든 장애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스페인의 대표적이고 전체적인 장애인 조직입니다. 스페인 정부의 장애인복지국장이 바로 온세 직원이었고 스페인의 온세는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지만 전 장애인을 아우르는 조직입니다.

러시아도 호텔 및 부품업체 등 시각장애인 공장이 150여개나 있고, 이 공장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시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5백 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월급이 7백 달러 정도라고 하니 시각장애인 9,500명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이 적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도 이러한 시각장애인 복지모형을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 일자리도 외국에서처럼 한시련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안마침의 합법화와 안마사 훈련기관들의 전문대학화를 기획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내부의 반대가 외부의 반대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우리 내부의 합의가 더욱 더 중요시 여겨지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안마 바우처 제도와 경로당 안마사업 또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분야입니다. 바우처 안마를 통해 안마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자립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경로당 안마는 60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노후의 일자리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커피숍도 운영을 해보았고, 안마센터도 운영을 해보았지만 사실상 비장애인들과 경쟁하여 돈을 번다



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각장애
인들을 위한 보호적 차원에서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유보고용이라는 인마업의 발전은 우리가 유산으로
이어받아야 할 직업입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일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음성바코드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합법화 되었고,
활동보조이용자의 65세 이상으로의 연장이 사전 이용자에 한해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별 자립생활센터도 만들어졌고, 심부름센터 소장의 자격 문제도 일부 광역자치단체
에서 조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건강보험화도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스크린리더는 윈
도우즈8에서부터 자체 작동되기에 더 이상의 개발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행자용 GPS 등 많은 새
로운 보조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우리의 자립을 높여나가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 한
시련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조에 있어서 65세 이상에 대한 완전한 허용 또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의제이고 장애
인심부름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 국민연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연금의 급여 확대,
활동보조 시간의 확대, 침문제의 합법화, 안마훈련기관의 전문대학화 등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은 높고
도 험한 것 같습니다.

올 해는 또한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 광역의원에 2인, 기초의회에 1인, 그리
고 경증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명 진출했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보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정치에
입문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행운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동익** 드림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김장 김치 나누며 사랑 나눠요



겨울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느라 재료 준비부터 본격적인 김치 담그기, 김치 보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 김장철을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가정에서 김장은 어려운 일입니다. 김치는 1년 사시사철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지만 재료 준비부터 김장 속 버무리기 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가정에게 김치를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서 시각장애가정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원더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관 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직접 김치를 담가서 시각장애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장을 담가본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많아 걱정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은 직접 김치를 담구고 시각장애인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사랑. 김장김치도 예외는 아니죠?



설원을 누비는 즐거움! 시각장애인 스키캠프가 진행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스키, 보드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각장애인과 스키라고 하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스키는 낯선 운동이 아닙니다. 스키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의 한 종목으로 많은 시각장애인 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좋은 성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스키를 타기 위해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서울곰두리체육센터에서 '2013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스키캠프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하이원 스키장에서 진행되었는데,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곰두리체육센터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습니다. 특히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를 진행했는데, 앞으로 매년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키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스키캠프에는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1:1로 짝을 이뤄 스키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스키 타는 법을 알려주고 함께 스키를 타며 방향을 알려주는 등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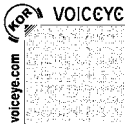
2013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

2013년을 보내며 '2013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 중이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80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기타연주, 스윙댄스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점자이름 만들기 체험을 하는 등 알찬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우수봉사자, 후원자 표창 및 봉사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헬스키퍼 고용 확대를 위한 무료 안마 시연

벨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시각장애인 무료안마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무료로 안마시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무료안마시연으로 많은 분들에게 시각장애인 안마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 전시 체험 후기

연순자(서울시 종로구)

한 줄기, 아니 한 점의 빛도 없는 곳! 어둠 속에서 로드마스터의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에 이끌려 눈을 감고 1시간 남짓 더듬어 가며 가슴으로 느끼고 촉감으로 세상을 더듬어 보았다. 손으로 짚는 벽돌담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다고 나무로 된 벽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또 숲으로 된 공간에서 나무를 만졌는데 약간 차가운 느낌이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촉이 약간 차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알았다.

이곳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부터 처음 가는 곳에서는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만져보고 들어보고 식당에 외식하러 가면 심지어 주방까지 가서 냉장고도 만져보고 소리도 들어보던 아들이었다. 남의 집에 가면 구석진 곳까지 가서 만져보고 집을 여기저기 다 만져봐서 시각장애 아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가면 어려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때는 왜 이리 산만하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냐며 아이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을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어둠 속의 대화'를 체험함으로써 아들의 어렸을 때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져 보고 더듬어 보는 것은 산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당연한 호기심이라는 것을 말이다.

바늘구멍만한 빛도 없는 곳에서 나는 다시 눈을 감고 갔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지하철 안내 방송하는 여자하고 결혼할거야"라고 말했던 것이 떠오른다. 목소리를 통해 상상의 나라를 펴고 나름대로 이미지화 했던 것 같다. 앞으로 나도 목소리 관리를 해야겠다. 좀 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암흑 속에서 로드마스터만 믿고 1시간 동안 의지하여 체험을 마쳤다. 그 암흑 속에서 로드마스터는 원적외선 안경을 착용한 정안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험을 마치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를 안내해주었던 로드마스터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목소리 하나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목소리는 또 하나의 인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눈을 감으니 다른 감각들이 작동하고 느껴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의 대화를 미리 체험했었다면 시각장애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잘 키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각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라면 꼭 어둠 속의 대화를 체험하시길 권한다.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노하우를 얻을 것이다.



※ '어둠 속의 대화'는 로드마스터라는 가이드의 인솔 하에 암흑 속을 걷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이 글은 시각장애 자녀를 둔 연순자 씨가 '어둠 속의 대화'를 체험하고 느낀 바를 적은 글입니다.



안내견과 함께하는 새내기 시각장애인공무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의 최수연 주무관을 만나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청에 처음으로 안내견과 함께 출퇴근하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막 입사 3개월이 지난 7급 공무원 최수연 주무관인데요, 최수연 주무관은 형태만 파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으로 늘 안내견 운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으로보는세상에서는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는 최수연 주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Q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과 직원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계획하는 업무입니다. 직접 대상자들을 만나서 것은 아니고 계획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Q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일단 편견이 작용하지 않는 직업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시험을 치를 때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 점자시험지 등의 환경이 제공되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도 공무원과 잘 맞았구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Q 공무원이 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A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교재였어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 새로 개정되는 법이나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재는 업데이트가 느린 편이니까요. 직접 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 의뢰해서 교재를 받아보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교재를 받아보려면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달도 걸리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Q 공무원공개채용 시험은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험인데요, 시각장애를 겪고 계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교재를 컴퓨터를 통해 음성으로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점자는 속도가 느려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로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로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타자로 필기를 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타자로 필기를 하면서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공부를 했어요.

Q 안내견 온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온유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온유를 만난 것은 2012년 10월이에요. 안내견 학교에 신청을 해서 온유와 만나게 되었고요. 2주 동안 안내견 학교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았고 다음 2주에는 생활 환경에서 훈련을 했어요.

Q 온유와 함께 근무하시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 제가 아는 사람이 앞에 지나가도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럴 때 온유가 저를 끌고 아는 사람에게 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온유를 보고 인사해주시고요. 온유 덕분에 주위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안내견 온유와 늘 함께 근무하시면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A 네. 아무래도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내견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식당에 갈 때 망설이게 되요. 저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를 못해주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런 점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Q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많은 것을 지원받았는데, 컴퓨터 음성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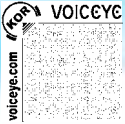
광학문자판독기, 점자리벨기, 데이지 플레이어, 독서 확대기를 지원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온유를 위해서 자리도 만들어주셨어요. 제 자리 옆에 있던 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온유가 근무시간 내내 제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주셨어요.

Q 근무하신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나셨다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아직 거창한 계획은 없어요. 일을 열심히 배워서 시각장애가 있어도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각장애인분들께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비장애인들에게도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독자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아직 제가 다른 분들께 조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를 말한다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도전을 하면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각장애인 음악인, 관현맹인으로 활약하다

과거 조선시대에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궁중 음악인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악학을 발전시키면서 관현맹인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관현맹인은 궁중 내연에서 통소, 피리, 거문고, 가야금으로 관현합주 또는 가무반주를 했던 시각장애인 음악인 조직입니다.

세종 13년에 박연은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관현맹인은 앞서 살펴본 대로 세종대왕이 조직하였으나 관현맹인이 만들어진 정확한 연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 6년에 박연을 비롯한 시각장애인 26명이 “시각장애인들이 거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 생계를 이어 왔는데, 요새 국상으로 인하여 음악을 정지하여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문서를 올린 것으로 보아 세종 6년 이전에 이미 관현맹인이 조직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악인들을 궁중에 두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복지대책의 일환입니다. 직업을 갖기 어려웠던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관현맹인을 만든 것이죠. 두 번째는 내외법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의 문화적 특성입니다. 당시 여성만 있던 궁중 내연의 경우에는 비시각장애인 악공들이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음악인으로 구성된 관현맹인이 궁중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관현맹인이 조직되어 존속되는 동안 관현맹인을 두고 줄곧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종 29년에 의정부에 속한 창기들이 모두 향악과 당악을 배워서 관현맹인이 소용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현맹인에 속한 시각장애인들이 관직에 매여 있어서 편하게 살수 없다고 하여 관현맹인을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관현맹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생업을 위한 음악활동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관현맹인을 없애서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시각장애인 음악인들은 관현맹인 조직이 사라졌지만 사대부들의 잔치나 행사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 성종대왕에 이르러 관현맹인은 다시 부활됩니다. 성종대왕은 관현맹인을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선발하여 음악을 교육시켰습니다. 특히 성종대왕은 예조에 명하여 “내연 때는 악공을 쓰지 말고 시각장애인으로 음악을 연주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시각장애인 음악인들이 관현맹인으로 활약했다면 과거 중국과 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음악인으로 활약했을까요? 중국의 경우 하, 은, 주 시대에 시각장애인에게 일식과 월식을 막기 위해 시를 외우고 북을 두드리는 일을 맡겼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주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 악사를 두어 시를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악사가 언급된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나라 때 시각장애인 음악인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조선 영조 때 실학자 홍대용이 청나라 연경에 다녀와서 적은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 음악인이 활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대용이 청나라에서 어느 부잣집에 초청을 받아 집으로 가자 비파를 든 시각장애인이 와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5세기에 일본으로 건너 간 중국 시각장애인 승려에 의하여 비파의 비곡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에서는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과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을 대부분 당인으로 칭하였기에 비파의 비곡을 전수한 사람이 백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에는 김소재와 서익성이라는 시각장애인이 일본으로 가서 음악활동을 했습니다. 일본 역시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직업으로 삼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나 중국과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음악인을 고용하여 연주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임안수, 2010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취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안내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시각장애인이 독립된 삶을 살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안내견을 훈련하게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은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

안내견은 출생부터 약 2년 동안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재탄생합니다. 안내견은 출생 후 7주간 안내견학교에서 사람과 친숙해지는 초기 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에는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며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퍼피워킹

(Puppy-Walking)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퍼피워킹을 마친 후보견들은 안내견학교의 전문 훈련사로부터 본격적인 보행훈련을 받습니다. 보행훈련은 6개월~8개월이 소요됩니다. 보행훈련을 받으면 모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이 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행훈련이 끝나도 최종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최종선발과정에서 선발되어야만 진짜 안내견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선발을 거쳐 안내견이 되면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기증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학교로 신청을 한 후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기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안내견학교에서는 안내견 견주의 자격조건으로 시각장애



인으로 20세 이상이며 안내견을 돌볼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분양 시 안내견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내견을 기증받아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안내견 '미담'이의 견주인 김경민 씨는 서울 홍제동 인왕중학교에서 3년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시각장애인 김경민 씨 곁에는 항상 안내견 '미담'이가 있는데요. 김경민 씨가 2007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미담이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경민 씨는 2011년 단대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직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선생님이 된 후에도 늘 항상 미담이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는 안내견 '찬미'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재음대 졸업 후 미국으로 가 박사과정에 매진 중이신데요. 미국에서도 안내견 찬미와 함께하고 생활하신

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20년간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안내견은 몇 마리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시각장애인에게 기증된 안내견은 몇 마리일까요? 20년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만난 안내견은 총 164마리입니다. 164마리 중 현재 활동 중인 안내견은 60마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간 안내견 양성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 가정은 총 600여 가정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예비안내견을 보살펴준 퍼피워킹 가정은 477가정이며 퍼피워킹뿐만 아니라 은퇴한 안내견을 집에서 홈케어한 가정이 108곳, 번식견을 집에서 돌봐주신 홈페이지 봉사가정까지 포함하면 모두 600여 가정이 됩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 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내견들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2013년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 4/4분기 정산내역

후원금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06,776,818	계	106,776,818
지정후원금	12,133,771	CMS메카	99,000
비지정후원	4,598,840	CMS사용료	99,000
잡수입	20,098	CMS이체수수료지출	18,480
CMS이체수수료수입	18,480	소식지 제작사업비	660,000
이월금	90,005,629	소식지 발송요금	73,320
		2013 노원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운영비	235,960
		서울메트로와 함께하는 "사랑의등산행사" 사업비	327,040
		후원회운영사업 현수막제작비	30,000
		원더풀과 함께하는 가정문화체험 사업비	3,422,890
		재가 시각장애인 밀반찬보급사업비	294,200
		원더풀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비	8,435,024
		이월금	93,081,904

후원물품

항목	세 입	세 출
	후원물품내역	후원물품사용내역
후원물품	의류 128벌 - 더다다	2013 노원 사랑나눔 연합바자회에 사용
	치과치료(재능기부) - 뉴욕치과의원	저소득 시각장애인 2명 치료
	에어메리 40벌 - 서울메트로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 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우리은행 1006-601-227253

· 외환은행 170-22-00710-6